

# ‘유퀴즈’ 제작진 “방탄소년단에 스며들었다”

방탄소년단, 무명시절 고백 솔직한 입담 빛나

유재석·조세호 “서로 다른 매력 놀라웠다”

유퀴즈 역대 최고 시청률 8.6%↑ 기록해

“영원한 것은 없죠. 슈가 형이 예전에 그랬어요. ‘추락보다는 안전하게 착륙하고 싶다’고요. 많이 와 닿았습니다.”(제이홉)

그들 ‘방탄소년단’(BTS)이 케이블 예능 채널 tvN의 ‘유퀴즈 온 더 블럭’(유퀴즈)에 출연해 속내를 털어놓았다.

24일 오후 방송된 ‘유퀴즈’ 99회에서 세계적인 팀이 되기까지 고민과 힘들었던 과정을 솔직하게 전했다.

성공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슈가는 “이 정도 하면(이렇게 인기를 얻으면), 가수 인생을 마감할 줄 알았다”고 했다. “수명이 길지 않으니, 음악 방송 1위하고 단독 콘서트 하면 가수의 인생은 끝나고 프로듀서의 인생이 생길 줄 알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방탄소년단이 미국으로 가게 돼 앞이 캄캄한 느낌이었다고 했다. 특히 지난 2017년 미국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AMAs)에 공식 초청 받아 ‘DNA’ 무대를 선보였던 때가 제일 떨렸다고 돌아봤다.

“어떤 의미인지를 아니까요. 그날 호텔에 들어가서 울었어요. 제가 원했던 게 아니니까, 이렇게 부담스러운 상황을 원치 않았으니, 무서웠죠.”

무엇보다 자신들은 자신들의 할 일을 열심히 한 건데 국가에 이바지했다고 하니 너무 부담스러웠다고 했다. 회사에 잠시 멈춰야 하지 않냐고 제안을 했고, 2019년 10월에 한 달 휴가를 받았다. “마지막까지 내려오는 순간에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홀로 하는 추락이 아닌 모두와 함께하

는 착륙이라면 두렵지 않겠더라”고 덧붙였다.

이날 슈가는 어깨 부상에 대한 이야기도 전했다. 그는 지난 2012년 교통사고를 당한 슈가는 이듬해 어깨의 상완골 탈구 진단을 받았다.

어깨 통증에 지속적으로 시달리다, 재작년 어깨 관절 주변 연골 파열을 뜻하는 좌측후방관절 외손파열 진단을 전문의로부터 받았다. 그대로 뒀다가는 가수 활동에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11월 좌측 어깨 부위의 파열된 관절외손을 봉합하는 수술을 받았다.

연습생 시절 편지, 배달, 작곡 레슨 등 알바를 했다는 슈가는 “회사에서 더 이상 투자할 돈이 없고, 데뷔할지 말지 고민하던 시기가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배달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했다.

다른 멤버들도 연습생 시절을 돌아봤다. RM은 뷔와 첫 만남과 관련 “2011년 9월 여름, 뷔가 숙소로 들어왔는데 반박이었어요. 인사 한번 하더니 방을 돌려보더라. ‘말 진짜 안 듣게 생겼다’고 생각했다”고 웃었다. 뷔는 RM에 대해 “저는 연예인 보는 기분이었어요. 서울 사람 같았다”고 했다.

또 당시 숙소에는 최대 9명까지 함께 살았고 기억했다. “학교도 근처로 다녔어요. 컴퓨터도 한 대로 함께 사용했고 웃도 서로 돌려입었다”고 돌아봤다.

지민은 연습생 시절, 멤버가 되기 위해 노력했던 시절을 전했다. “새벽 4시까지 연습하고 아침 6시 반쯤 일어났다”는 것이다. “아버지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전화해서, ‘안될 수도 있는데 실망하지 말아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코로나19로 팬들을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도 전했다. RM은 “이 시국이 1년 정도 지속된다면, 그동안 저희가 세워 왔던 큰 뼈대가 없어진 기분이 든다”고 했다. “최선을 다해서 보여주자, 이렇게 올라온 팀이거든요. 생명을 소모한다고 생각하면서 활동을 해왔는데, 밥과 절정으로 치달는 순간들이 강제로 없어지니까 뭔가 땀땀하지 못한 거 같은 느낌”이라고 털어놓았다.

지민은 팬덤 ‘아미’에 대해 “사랑하는 사람 같다”고 했다. “다른 말이 안 떠올라요. 여러 감정을 느끼게 해주신 분들이예요. 저희가 어린때도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셨다”고 고마워했다.

앞으로 바라는 것은 ‘그레미 어워드’ 수상이다. 최근 방탄소년단은 후보로 지명됐으나, 어렵게 수상을 불발했다. 슈가는 “꼭 받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날 방탄소년단은 ‘BTS 여고생’으로 알려진 학생을 직접 만나 함께 춤을 췄다. 유재석·조세호와 릴레이 노래방, 댄스 마피아 게임 등을 즐기는 등 소탈한 모습을 보였다.

연출을 맡은 김민석 PD는 “작가들이 방탄소년단의 출연이 확정된 순간부터 방송 직전까지 휴일도 없이 자료조사와 구성을 해왔다. 피드들은 방탄소년단의 공연 영상, 해외활동 영상, 그리고 앨범 전곡을 들으며 미리 편집에 쓸 소스들을 고민했다”라고 후일담을 전했다.

“MC 유재석, 조세호 씨도 멤버들 개개인의 색깔이 다채롭고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게 놀라웠다”고 했다. 재석이 형은 이렇게까지 방탄소년단 동생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눠본 게 처음이라고 했다. “형들이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준 덕분에 녹화 내내 멤버들도 진솔한 얘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제작진 또한 편집하면서 방탄소년단에 스며들었다. 왜 전 세계 아미 자기들이



오랜 시간 방탄소년단을 사랑해왔는지 알 것 같다. 각자 멤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방탄소년단 음악을 다시 들어보니, 정말 이 모든 가사들이 그들의 삶에서 비롯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남준자기님, 진자기님, 슈가자기님, 호비자기님, 미니자기님, 뷔자기님, 쫘자기님에게도 좋은 추억이었길 바란다. 앞으로도 방탄소년단이 ‘아미’라는 무한히 펼쳐진 바다를 향해하며 행복한 마

음으로 음악을 계속하시길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유퀴즈 온 더 블럭’ 전국 시청률(유료플랫폼 가구 기준)은 6.7%를 기록했다. 2018년 이 프로그램 첫 방송 이후 역대 최고 시청률이다. 최고 시청률은 8.6%를 찍었다. 방탄소년단 팬덤 아미는, 방탄소년단의 출연을 축하하며 중간 광고를 사는 서포터도 했다.



## ‘달이 뜨는 강’, 1~6화도 재촬영한다

‘학폭’ 지수→나인우로 교체

KBS 2TV 월화극 ‘달이 뜨는 강’이 학교 폭력으로 허자한 지수의 출연분을 모두 재촬영하기로 했다.

‘달이 뜨는 강’ 측은 현재 중단된 1화부터 6화까지의 다시 보기 서비스를 나인우 출연분으로 대체해 재개한다고 밝혔다.

지수가 출연했던 1~6화는 현재 다시 보기 서비스가 중단된 상황으로, 나인우는 지난달 8일 방송된 7회부터 온달 역으로 합류했다.

드라마 측은 “나인우 재촬영을 통해 기존 시청자들이 작품을 ‘복습’하도록 돕고, 새로운 시청자들의 접근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달이 뜨는 강’은 고구려가 삶의 전부였던 공주 평강(김소현 분)과 사랑을 역사로 만든 장군 온달(나인우)의 운명에 굴하지 않은 사랑을 그린 퓨전 로맨스극으로 시청률 9%대(닐슨코리아)를 유지하며 월화극 1위를 지키고 있다.

매주 월·화요일 오후 9시30분 방송한다.

## ‘리코드 프로젝트’, 7년 만에 부활...그룹 노을 참여

보컬그룹 ‘노을’이 7년 만에 부활하는 ‘리코드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24일 플렉스엔과 카카오펀터테인먼트의 280 프로젝트에 따르면, 이달 중 여섯 번째 앨범으로 부활하는 ‘리코드 프로젝트’에 노을이 목소리를 보탠다.

‘리코드 프로젝트’는 인디 아티스트와 기성 아티스트의 협업으로, 대중에 알려지지 않은 인디 뮤지션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는 평을 들었다.

2012년 첫 에피소드인 김소희와 소유의 ‘오피셜리 미싱 유, 투’(Officially Missing You, Too)를 시작으로 인피니트 남우현과 심규선의 ‘선인장’, 데이브레이크와 써니힐의 ‘들었다 봤다(Love Actually)’ 등을 연이어 히트시켰다.



곧 발매될 ‘리코드 프로젝트’의 여섯 번째 주자로 나서는 노을은 2017년 발표된 ‘T.P 레트로(RETRO)’(타디스 프로젝트)의 ‘오늘도 그대만’이다. 노을은 ‘늦은 밤 너의 집 앞 골목길에서’, ‘문득’, ‘너의 곁에만 맴돌아’ 등의 히트곡을 낸 음원강자로 통한다.

## 브레이브걸스 ‘롤린’, 가온차트 2관왕...발매 4년만

유튜브에 게재된 ‘브레이브걸스\_롤린\_땀글모음’ 영상 화제 돼 역주행

‘역주행 신드롬’을 쓴 그룹 ‘브레이브걸스(Brave Girls)’의 ‘롤린(Rollin)’이 발매 4년 만에 가온차트 정상에 올랐다.

25일 가온차트를 운영하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에 따르면, ‘롤린’은 12주차(3월 14~20일) 가온차트에서 디지털차트·스트리밍차트 1위에 오르며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브레이브걸스가 지난 2017년 3월 공개한 ‘롤린’은 트로피컬 하우스를 접목한 경쾌한

업템포의 EDM 장르 곡이다. 유튜브에 게재된 ‘브레이브걸스\_롤린\_땀글모음’ 영상이 화제가 돼 역주행했다.

이와 함께 이번 주 가온차트에서는 임영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는 다운로드차트, 벨소리차트, 컬러링차트 1위를 이어가며 3관왕을 차지했다.

앨범차트에서는 슈퍼주니어의 정규 10집 ‘더 르네상스’가 1위에 진입했다. 아티스트의 글로벌 인기를 확인할 수

있는 소셜차트2.0은 방탄소년단이 다시 1위를 차지했다.

집계 기간 동안 방탄소년단의 V LIVE 채널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콘텐츠는 ‘런 BTS! 2021 - EP.133’이었다.

이번 주 소셜차트2.0에서 가장 높은 순위 상을 보인 아티스트는 17일에 ‘어떤 X’(What Type of X)로 컴백한 제시였다.

한편, 12주차 디지털차트에 랭크된 신곡은 17위 이하인 ‘그 한마디’, 22위 우즈(조승연) ‘필 라이크’ 등이다.

뉴시스

## 엑소 찬열 ‘더 박스’, ‘미나리’ 꺾고 깜짝 1위

버스팅 로드 무비...음악적 역량·연기 한 번에 담아

그룹 엑소 멤버 찬열 주연작인 영화 ‘더 박스’가 개봉 첫날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했다.

25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전날 개봉한 ‘더 박스’(양정웅 감독)는 2만9000여명을 모으며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앞서 유료시사회 등을 개최해 누적 관객 수는 3만2000여명이다.

개봉 전 예매율은 상위권이 아니었던 만큼 ‘더 박스’의 전체 박스오피스 1위는 예상치 못한 깜짝 성적이다. 버스팅 로드 무비로 찬열의 음악적 역량과 연기를 한 번에 담아 팬들을 불러모은 것으로 풀이된다.

2위는 ‘미나리’로 2만 2484명을 동원했다. 누적 관객 수는 74만2000여명을 기록했다.



‘극장관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더 박스’와 같은 날 개봉한 공포 영화 ‘최면’이 뒤를 이었다.

## JTBC ‘독립만세’, 오는 29일부터 오후 9시로 옮긴다

연예인이 생애 최초로 독립에 도전하는 새로운 형태 관찰 예능



JTBC 예능 프로그램 ‘독립만세’가 방송 시간을 앞당긴다.

JTBC 측은 25일 “예능 ‘독립만세’가 29일부터 오후 9시로 방송시간을 옮긴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첫 방송된 ‘독립만세’는 오후 10시30분에 편성됐다. 오는 29일 5회부터는 이를 1시간30분 앞당겨 방송한다.

‘독립만세’는 한 번도 혼자 살아보지 않았던 연예인이 생애 최초로 독립에 도전하는 새로운 형태의 관찰 예능이다.

오는 29일 방송에서는 송은이, 악뮤, 재재에 이어 배우 김민석이 처음 등장에 독립생활에 도전한다. 그동안 가족 같은 친구들과 동고동락하며 지내 온 김민석의 설레는 첫 독립 도전기가 공개될 예정이다.

‘독립만세’는 매주 월요일에 방송된다.